



만개한 매화 상춘객 유혹 봄을 알리는 절기상 '춘분(春分·3월20일)' 이틀 뒤인 22일 광주시 다남면 매화마을의 매화가 만개한 가운데 상춘객들이 꽃길 사이를 걸으며 완연한 남도의 봄을 즐기고 있다. /조영권 기자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2라운드' 돌입

6·3 지방선거 D-72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서 정준호 탈락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5파전
27-29일 3개 권역별 정책배심원제 토론회
내달 3-5일 '당원 50%+국민 50%' 본경선
다자구도 결선 가능성 ↑ ...공방 격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선 기호 순) 후보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본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본경선이 5명 후보 간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상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성사 가능성이 높아 후보 간 정책 경쟁 뿐만 아니라, 지지세 결집을 위한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기호 1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기호 2번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기호 4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5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6번 민형배 국회의원 등 5명을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기호 3번 정준호 국회의원이 탈락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예비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경선은 오는 4월3-5일 사흘간 진행된다. 예비경선(권리당원 100%)과 달리 당심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투표는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 방식(ARS)을 병행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강제 ARS 발신 방식으로 조사된다.
민주당은 서울·경기과 동일한 수준인 약 9만 명 규모의 안심번호를 확보하고 이 중 3천명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4월12-14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다자 경쟁 구도 특성상 표 분산 가능성이 큰 만큼 결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권리당원 규모가 광주 약 11만명, 전남 약 20만명으로 전남 비중이 큰 구조에 더해 여론조사가 절반 반영되는 방식이 결함되면서 조직력과 대중 확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본경선에 앞서 후보 검증 강화를 위해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오는 27-29일 권역별 심층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배심원제 토론회 일정은 전남 서부권 27일, 전남 동부권 28일, 광주권 29일이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직능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 3명과 권역별 정책배심원 30명이 참여해 즉문즉답 방식으로 후보들의 공약

과 역량을 점검한다. 다만, 정책배심원단에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본경선이 본격화하면서 5명 후보 간 견제와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각 후보들은 지역 공약과 시·도정 평가 등을 둘러싼 상호 비판을 쏟아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신정훈 후보는 김영록 후보의 지난 8년간 전남도정과 '서울 용산 아파트 소유·무안 관사 거주'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등 강기정·민형배, 김영록·강기정, 주철현·김영록 후보 간 정책·자질 검증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결선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후보 간 연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여부와 탈락 후보의 타 후보 지지 선언 역시 향후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지역 기반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구도가 형성돼 있어 단일화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인 만큼 본경선 마지막 날까지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경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2주일 동안 얼마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선두권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알림

'독자권익위원회' 새롭게 출범합니다

학계·법조·경제·의료·시민사회 등 14명 참여

광주매일신문이 2026년 독자권익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합니다.
제10기 독자권익위원회에는 학계를 비롯해 경제·법조·의료·여성·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채로운 분야의 인사 14명이 참여합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오는 2027년 말까지 광주매일신문의 보도에 대해 독자의 입장에서 평가와 제언을 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정기적인 독자권익위원회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늘 독자를 위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제10기 독자권익위원
▲고은경 전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김경태 광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미남 전청와대 행정관 ▲김영기 전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박국준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석주연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안산영 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 ▲오화숙 전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 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 ▲이숙영 조선대 무용과 교수 ▲장수일 광주경찰서 사무국장 ▲장우식 조선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정희 변호사(가나다順)



광주매일신문

이번 주 완연한 봄 날씨...일교차 최대 19도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도 영상권에 머물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 광주·전남 지역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1-7도, 14-21도로 예보됐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산지처럼 그늘진 곳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날 최저·최고기온 차이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특히 담양·화순·곡성(최

저기온 1도, 최고기온 20도)·구례(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21도)는 일교차가 19도까지 벌어지겠다.
24일 최저기온은 3-8도,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상됐다. 25일 최저·최고기온은 분포는 전남보다 소폭 상승한 5-9도, 15-20도가 되겠다.
26일 구례는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올라 가장 따뜻하겠다. 나머지 지역 최저·최고기온 분포는 3-8도, 13-21도로 예상됐다. 이번 주말·휴일 최저·최고기온은 평년(2-7도, 13-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형우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시통발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